

“식품산업 발전 돕겠다”

익산 방문 이낙연 전 대표,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0일 익산시 모현동 디아올 로컬푸드직매장 준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건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전북 익산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익산 디아올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준공식에 참석해 “호남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공급창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농수산위원장을 할 때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도운 일이 있다며 “남시 광주·전남이 신청을 하지 않고 전북에서 익산이 신청해 농림부 장관과 상의했던 일이 었 그 제 같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뒤로 클러스터 현장을 몇 차례 방문했다”며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장과 의장, 국회의원 등이 지혜를 모아 식품클러스터가 더욱 번창하고 활기에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전 대표는 끝으로 “모든 힘을 다 해서 익산의 식품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군산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특별 청소대책을 수립해 오는 2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군산 만들기’

군산시, 추석연휴 특별 청소대책 수립

군산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특별 청소대책을 수립해 오는 2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청소대책은 추석을 기점으로 추석연휴 전, 연휴기간, 연휴 후 세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연휴 전 9일부터 17일까지는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등에 적치된 방치쓰레기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20일부터 22일까지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응대를 위해 시청 청소민원 상황실 운영을 통해 청소민원을 처리한다.

또한 시청 직영미화원과 청소대행업체인 서해환경, 금호로지스의 기동 청소반이 민원발생 지역에 찾아가 특별 수거를 실시하며, 명절 당일엔 비상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그 외 연휴

기간은 정상근무를 실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도록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이후인 23일부터 이를 동안에는 연휴기간 발생한 쓰레기를 일제 수거할 계획이다.

읍면동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해 도로변 및 쓰레기 취약지역 등에 방치된 쓰레기 등 도시 미관 저해요소를 일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모두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스티로폼 상자 배출 시 테이프, 주스캡 등을 제거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쓰레기 줄이기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국가산단, 한국산단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상호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위해

군산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군산국가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임준 군산시장 김성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군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군산국가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혁신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구조고도화 사업 등 주요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속성장 가능한 유망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추진,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등이 있다.

또 시는 그동안 관광호텔 등 유치를 위해 수차례 공모를 추진했으나 사업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응도동 38번지(비응도 군부대 부지) 부지에 대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응도동 38번지는 산업단지 구역 내

지원시설 구역으로 관광호텔과 더불어 산업단지 근무자들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해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신청을 위한 조건부 토지사용 승낙 후, 사업신청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업체 고도화, 기업지원 편의시설 확충사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는 민간대행사업자 모집 방식과 국가에서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환경개선펀드사업이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황철호 군산 부시장, ‘국회단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 황철호 부시장이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전리북도 소속 국회의원실을 찾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국회 방문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에 대비해 주요사업에 대한 확보 필요성을 사전 설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황 부시장은 신영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군산시 중점 확보대상사업 국회 대응 전략을 설명했고, 향후 진행될 삼일위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국회 예결위 소속인 이원택, 정운천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결위 심의 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요청했다.

시가 국회단계에 확보해야 할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틀렛 품 개발과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군산항 유지보수 사업 등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 WK300 강소기업 66.7% 인력 채용 추진

원광대학교는 WK300 강소기업 중 66.7%의 업체가 하반기 채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밝혔다.

원광대는 지난 7월과 8월 WK300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력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6.7%가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 중 77.2%는 대졸자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88%의 기업은 경력이 없더라도 채용이 가능하고 경력직을 요구하는 기업은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1.3%는 지역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신

입직원의 평균연봉으로는 응답 기업 중 가장 많은 42.6%가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예정 분야는 생산직이 58.6%, 연구개발직 47.4%, 영업직 27.2%, 경영지원 22.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신입직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으로 직무역량(74.3%)을 꼽았으며,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67.7%)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원광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300개 기업을 WK300 강소기업으로 선발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뉴시스

지역 소식통

군산 배달의 명수 서비스 이관 · 할인이벤트 진행

군산시는 공공배달업 배달의 명수 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 서버로 이관하면서 14일 0시부터 오후 4시(예정)까지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운영재개 시부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착순 1,500명에게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번 서버이관은 그동안 사용량 증가 등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실시된다. 운영재개 후 함께해준 소비자들을 위해 배달의명수 주문 시 2,000원 할인쿠폰이 선착순으로 1,500명에게 바로 적용된다.

작년 3월에 출시한 배달의명수는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립 늘푸른도서관 국립생태원 특별전시

군산시립 늘푸른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2개월간 국립생태원과 공동협력해 ‘기후변화와 생태계’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한반도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일리고 지역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과 함께 기획됐다.

전시내용은 ‘기후변화와 이야기’, ‘기후변화와 생물들’, ‘기후위기와 대응’, ‘국립생태원과 기후변화 연구’, 병들어 가는 생태계’ 등으로 구성되며 ‘기후변화와 생물들’에서는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생태조사 등을 통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우리나라 동식물을 한 번에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국립생태원과 기후변화 연구’에서는 국립생태원이 수행하고 있는 생태계 기후변화 조사, 기후변화 위험평가 등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이해와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